

하마노카와 용수

용수는 시마바라 마을 전체에 많지만, 하마노카와 용수만큼 일상 생활과 밀접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.

수백 년 전 이 곳은 물속에 있었습니다. 1792년에 발생한 파괴적인 강한 지진으로 마유야마(819m)의 대부분이 붕괴되어 바다로 밀려들면서 해안선이 넓어졌습니다. 그 후 새로 생긴 육지에서 산이 무너지기 전에는 해저에 있었던 샘이 솟아난 것입니다.

하마노카와 용수의 물은 순도가 높고, 바다와 가깝지만 수원은 다릅니다. 화산토의 균열이 산에서 흘러온 빗물을 여과했고,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. 용수가 발견된 이래 지역 주민들은 재해로 생겨난 혜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 용수에는 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. 용수는 4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첫 번째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식료품 세척용, 2번째는 식기와 식료품 행굼용, 3번째는 식기 세척용, 4번째는 세탁용입니다. 마시고 싶다면 공공컵을 사용하여 첫 번째 샘에 들어가기 전 수로에서 떠서 마실 수 있습니다.

하마노카와 용수는 1985년 환경성 선정 일본의 '명수백선'에, 1995년에는 국토청으로부터 '물의 고장'으로 선정될만큼 아주 유명합니다. 또한 현지의 명산품 '간자라시'라는 경단 시럽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.